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

도교육청, 적극행정 위원회 열어... 5대 추진방향·15개 핵심과제 담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4일 5층 회의실에서 '제7회 전라북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지난 2021년 5월 7일 제정된 '전라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것으로 이날 회의에는 박주용 부교육감을 비롯해 내·외부 위원 8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매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마련 △적극행정 관련 효과적인 정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

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교과 및 홍보 강화를 5대 추진방향으로 삼아 15개 핵심과제를 담았다.

특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인원을 확대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적극행정 추진 성과가 학부도, 도민 편의 제고 및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안을 중점과제로 선정·운영한다. 중점과제로는 천년전북 직업교육 혁신지구(창의인재교육과), 광역별 안전체험관 조성(학교안전과), 광역형 공동통학구역(교육협력과) 등 8건

을 선정했다.

또한 적극행정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으로 제작해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반면에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은 근절에 나선다. 소극행정 유형에는 적당면의·업무태만·탁상행정·관공심행정 등이 있으며, 감사관심은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극행정 발생 시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책임관을 맡고 있는 이흥열 감사관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변화에 적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면서 "적극행정에 대한 공직사회의 인식을 높여 모든 직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제1회 J-디지털 취·창업 페스티벌'이 24일 전북대학교 진수당과 구정문 앞의 거리 일원에서 열렸다. 행사장을 찾은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우범기 전주시장 일행이 학생들이 참여하는 부스를 돌아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 기업·학생 매칭

제1회 J-디지털 취·창업 페스티벌

면접채용관·채용설명관·명사 특강 등 다채

'제1회 J-디지털 취·창업 페스티벌'이 24일 전북대학교 진수당과 구정문 앞의 거리 일원에서 열렸다.

전북대학교 SW(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사업단과 전주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양오봉 총장과 우범기 전주시장, 이영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이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최근 챗 GPT 등으로 확산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관련 분야 기업과 우수 인재의 매칭의 장이었다. 공공기관과 IT, SW 기업의 채용 설명관 부스를 비롯해, 취업 전문가와 유명 IT기업 대표 등의 명사 특강 및 토크콘서트, 선배 취업자들이 실전 취업팁을 공유하는 현장직 초청부스, 취·창업 플래마켓(플리마켓, 프리마켓) 등이 마련됐다.

면접채용관에는 지역 IT/SW기업이 참여해 60여 명의 직원을 실

제 채용하기 위한 현장 면접이 진행됐고, 채용설명관에는 국토정보공사와 전북은행 등 지역 공공기관과 대기업 5곳이 참여해 기관 인재 채용 안내가 이어졌다.

또한 명사 특강에서는 지방대 출신으로 15곳 대기업에 동시 합격해 '유리즈'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황인 한국이쿠르트 프레젠테이션 '스피치'의 신이 알려주는 취업 합격 노하우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고, 취업 분야에서는 남윤호 IT기업 대표 등의 명사 특강 및 토크콘서트, 선배 취업자들이 실전 취업팁을 공유하는 현장직 초청부스, 취·창업 플래마켓(플리마켓, 프리마켓) 등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구정문 앞의 거리에서는 전북대 취업지원과와 총학생회 주관으로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에 재직 중인 선배들이 직무별 취업 성공전략을 공유하는 초청부스 등도 열렸다.

이 외에도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토크콘서트, 인생네컷, 취업진로 타로관 퍼스널컬러 진단 등 다양한 이벤트 부스와 함께 취·창업 컨설팅 부스 이력서 사인촬영, 이미지 메이킹, 면접 의상 대어관 등 구직자들의 관심을 끄는 부스도 다채롭게 마련됐다.

이날 양오봉 총장과 우범기 시장 이영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도 직접 학생들이 참여하는 부스를 돌아보며 기업 관계자와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양오봉 총장은 "지역 IT/SW의 경쟁력은 좋은 인재들에서 나온다"며 "이번 취·창업 페스티벌이 대학생과 구직자 예비창업자들에게 취직과 창업의 기회를, 지역 기업은 양질의 인재를 구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최근 챗GP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우리의 생활에서 디지털 신기술로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취·창업 페스티벌 외에도 다양한 IT/SW분야 인재 육성 프로그램과 행사 등으로 전주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촉매환원 반응 따른 과장 측정 정량적 데이터 머신러닝 적용

전북대 조재혁 교수 연구팀



컴퓨터 과학, 인공 지능, 화학 및 생물 의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인공 지능의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술은 염료의 제거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 머신러닝을 사용해 폐기물에서 염료의 제거 행동을 모델링하고 학습하면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필요한 실험 반복 횟수를 줄일 수 있다.

이에 전북대학교 조재혁 교수 연구팀(소프트웨어공학과, 사진)이 촉매환원 반응에 따른 과장을 측정 정량적 데이터를 머신러닝에 적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과장의 변화를 시계열 데이터로 측정하고 오염물과 화학 분자구조에 따라 독립변수와 과 상관성이 있는지 확인했다.

연구팀은 니트로페놀과 아조염료 각각의 상관관계를 피어슨상관계수로 계산해 양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특징을 머신러닝에 활용했다. 머신러닝 대표 알고리즘과 그리드 서치 등을 활용에 적합한 하

이퍼파라미터를 구했다.

연구를 총괄한 조재혁 교수는 "니트로페놀과 아조염료의 종류에 따라 수질 정화를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이것으로 오염 물질의 촉매 환원반응을 예측해 환경공학과 수처리 분야의 기업, 연구원과 엔지니어에게 유용한 가이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SCIE의 Engineering 카테고리 상위 7%인 알렉산드리아 엔지니어링 저널을 통해 게재됐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공과대학, 내일 외국인 유학생 한마당 행사

전북대학교 공과대학(학장 나창운)은 오는 28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외국인 유학생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유학생들에게 유학생들의 고단함을 털어내고, 이채로운 한국문화도 보다 가깝게 느끼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300여 명의 유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태권도 시범과 조선잡, K-Pop 비보잉 댄스 등의 공연이 펼쳐지고, 특히 K-푸드를 대표하는 대형 비빔밥 만들기 퍼포먼스를 통해 유학생들이 보고, 듣고, 맛보는 한국문화 축제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미국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을 패러디 한 'JBN's Got Talent'라는 장기자랑 콘테스트도 마련, 유학생들이 가진 다양한 끼와 재능을 엿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한편 전북대는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높은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한국 전통·현대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후 대학 전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추진

총 70억 들여 올해 70곳 지원... 학습·토론·놀이·휴식 등 가능 31일 군산교육문화회관서 선정학교 담당자 등 대상 사업설명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기존의 학교도서관을 학생들이 학습과 토론 놀이와 휴식, 공동체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래형 학교도서관은 전통적인 문자 텍스트로부터 디지털 텍스트까지 확장된 리터러시 개념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 내 정보의 허브로서 독서, 학습, 탐구, 토론, 문화체험 활동 휴식 등을 통해 아이들을 교원에게서 상호작용하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5월중 1차로 52개교를 선정해 51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6월까지 18개 학교를 추가로 선정해 총 70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모두 70곳을 미래형 학교도서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원된 예산은 학교도서관 공간혁신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도서관 및 메이커 교육을 위한 비품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31일 군산교육문화회관에서 선정학교 담당자와 관리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미래형 학교도서관의 이해 △미래형 학교도서관 공간구성 방향 △사업 추진 절차 △2022년 조성

지원할 예정이다. 또 6월까지 18개 학교를 추가로 선정해 총 70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모두 70곳을 미래형 학교도서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원된 예산은 학교도서관 공간혁신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도서관 및 메이커 교육을 위한 비품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31일 군산교육문화회관에서 선정학교 담당자와 관리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미래형 학교도서관의 이해 △미래형 학교도서관 공간구성 방향 △사업 추진 절차 △2022년 조성



전라교 학교도서관 대출반납대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도내 유일 대학 인권센터 확산지원 선정

전주대 인권센터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3년 대학 인권센터 확산지원사업'에서 도내 대학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 인권센터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조사 외에도 대학 인권 의식 강화 및 인권 문화 조성 등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수 모델의 발굴 및 확산을

지원할 목적으로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청·호남권에서는 3개 대학의 인권센터가 선정됐는데,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전주대 인권센터가 선정됐다.

소현성 센터장은 "전주대 인권센터는 이제 대학에서 지역으로, 학생에서 시민으로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와 일자리 간담회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23일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2층 중회의실에서 이노비즈협회(전북지회) 등과 지역 일자리 센터 협의체 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주대학교, 전주취업준비위원회, 우석대학교가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이노비즈 인증기업 및 신성장산업 중소기업들의 인재 채용 및 고용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전주기전대학 재학생·졸업예정자와 지역 청년들에게 취업지원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덕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전주기전대학 학생 및 졸업생 전북 지역 청년들이 이노비즈협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 '가치관 경매' 프로그램 운영

호원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는 지난 23일 '가치관 경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가치관 경매는 다양한 가치관들이 경매의 주제로 소개되면 참가자들이 가격을 제시하고 가치관을 구매하는 활동이다. 이번엔 운영된 '가치관 경매 프로그램'에서는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가치관 17가지를 경매의 주제로 소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선착순 30명을 모집해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참여한 학생은 "게임 형식으로 진행한 것이 흥미로웠고, 경매를 직접 접해볼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한 것이 흥미로웠고, 경매를 직접 접해볼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과학영재교육원 2023 과학영재기초 입학생

전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원장 손홍찬)이 도내 초·중등학생 45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전북과학영재기초' 입학생을 개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과학에 흥미를 가진 학생들에게 미래 과학도로서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목적으로 다양한 과학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5월부터 9월까지 수학, 생물학, 지질학, IT융합(스마트팜) 4개 분야와 관련된 주말교육, 여름방학 집중교육, 현장체험활동 등을 통해 운영된다.

손홍찬 원장은 "전북과학영재기초



전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이 도내 초·중등학생 45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전북과학영재기초 입학생을 개회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그간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며 "과학 분야에 관심이 큰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영재교육원은 올해로 20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5,228명의 학생이 수료했다. /정은성 기자